

# 2015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 문제(인문계열)

수험번호		성명	
------	--	----	--

##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

1. 문제지는 모두 4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표지 포함)
2. 문제지와 답안지 모두 수험번호 및 인적사항을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표기하시고 답안지는 반드시 흑색 볼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써야하며(숫자나 도식, 표 등은 예외), 연습이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답안작성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이며,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가능합니다.
5. **답안의 작성영역**을 벗어난 경우 감점처리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6. 답안지를 수정할 경우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재작성해야 합니다.



## 세종대학교

## 2015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 문제(인문계열)

(가) 목표가 명확하고 활동 결과가 바로 나타나며 과제와 실력이 균형을 이루면 사람은 정신을 체계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몰입은 정신력을 모조리 요구하므로 몰입 상태에 빠진 사람은 완전히 몰두한다. 잡념이나 불필요한 감정이 끼어들 여지는 티끌만큼도 없다. 자의식은 사라지지만 자신감은 평소보다 커진다. 시간 감각에도 변화가 온다. 한 시간이 일 분처럼 흘러간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여한 없이 쓸 때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건 일 자체에서 가치를 발견한다. 삶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된다. 체력과 정신력이 조화롭게 집중될 때 삶은 마침내 제 스스로 힘을 얻는다.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 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깊이 빠져드는 몰입이다. 몰입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행복을 느끼려면 내면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눈앞의 일을 소홀히 다루기 때문이다. 암벽을 타는 산악인이 고난도의 동작을 하면서 짬을 내어 행복감에 젖는다면 추락할지도 모른다. 까다로운 수술을 하는 외과이나 고난도의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가는 행복감을 느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야 비로소 지난 일을 돌아볼만한 여유를 가지면서 자신이 한 체험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가를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되돌아보면서 행복을 느낀다. 물론 몰입하지 않고도 행복을 맛볼 수는 있다. 고단한 몸을 눕혔을 때의 편안함과 따사로운 햇살은 행복을 불러일으킨다. 모두 소중한 감정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런 유형의 행복감은 형편이 안 좋아지면 눈 녹듯 사라지기에 외부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몰입에 뒤이어 오는 행복감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것이어서 우리의 의식을 그 만큼 고양시키고 성숙시킨다.

(나) 풍요 속에서는 사람이 타락하기 쉽다. 그러나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한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라는 말이 있듯 행복을 찾는 오묘한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당초의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 그리고 인간을 제한하는 소유물에 사로잡히면 소유의 비좁은 골방에 갇혀서 정신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청빈의 덕이다.

(다) 자본주의 정신은 노동 그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는 정신이다. 노동이 돈벌이나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자기 구원의 증명으로 쓰일 때 이것은 거룩해진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부자라도 노동을 포기하면 거기에 자기 구원은 없다. 록펠러든 누구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자식을 호강스럽게만 키우지 않고, 어렸을 때 엄한 노동 습관을 길러 준다. 자본주의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게으름보다는 부지런함이 자본주의를 앞당길 수는 있다. 방대한 자원을 가진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 발전이 부진한 데 비해, 자원이 없는 한국은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인은 정말 부지런하다. 연간 노동 시간수도 일본인 노동자들보다 더 많다.

부지런함은 자본주의의 정신일까? 아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정신의 결과일 뿐, 그 자체는 아니다. 마오쩌둥이 추진한 대약진 때, 그의 카리스마에 선동당한 중국 농민들은 맹렬하게 일했다. 그러나 그가 사라지자 그 부지런함도 함께 사라졌다. 자본주의 정신에서 유래되는 노동이란 이런 잠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생을 통한 것이며, 하나의 습성이며 자연스런 욕구에서 나온 것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한국인의 근면함은 이런 성질의 것인가? 한국인이 조그만 음식점을 하나 내었다고 하자. 처음에는 부부가 음식을 만들고 손님에게 직접 나르고 하여 부지런히 스스로 일했다. 그러다가 가게가 커지고 종업원이 많아지면 주인은 절대로 밖에 나타나는 법이 없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국인의 통념이다. 한국인의 노동과 부지런함은 배고픔에서 생겨서 신분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자본주의 정신이 아니라 양반 정신이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양반'이 되기 위해서 노동할 뿐, 진정한 자본주의 정신의 소산인 삶의 확인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도약을 막는 장애이다.

1.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행복에 대한 논점을 중심으로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400~500자, 30점)

2. 제시문 (가)와 (나) 모두를 논거로 활용해 제시문 (다)의 논지를 옹호하거나 반박하시오. (1100~1200자, 70점)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143-747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09 [www.sejong.ac.kr](http://www.sejong.ac.kr)

Tel 02-3408-3114, Fax 02-3408-3556

입학안내 02-3408-3456, 4455